

## 인간 김재규와 10·26에 대한 재인식

김광희\*

### 〈차 례〉

1. 들어가며
2. 호남비료사장으로부터 건설부장관에 이르기까지
3. 김재규의 명예욕과 자존심
4. 김재규의 살해 동기
5. 충성과 배신 사이
6. 원흉과 의사
7. 맺음말

### [국문초록]

그간 김재규는 박정희 혹은 박근혜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관심 받거나 재조명되어 왔다. 따라서 김재규와 10·26에 대한 평가는 국부를 시해한 ‘원흉’ 혹은 민주의사로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었다. 김재규의 행적을 고찰해보면 그가 박정희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지 않고 중도파로서 노력한 점을 보아낼 수 있다. 뿐더러 김재규는 명예욕이 특별히 강하였고 자존심이 훼손되면 폭발하는 기질이 있었다. 차지철과의 갈등, 박정희의 황음, 독재에 대한 불만 등이 김재규의 10·26거사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김재규는 성격이 복합적이어서 행적도 상호 모순될 정도로 극히 복합적이며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방황, 갈등한 흔적이 뚜렷하다. 10·26 거사만 해도 분노와 대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재규를 원흉 혹은 민주의사로 단정 짓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때문에 김재규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극단적인 이분법을 넘어서서 그를 있는 그대로의 원위치에 놓고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김재규 10·26사건 박정희 이분법 민주의사 ‘원흉’

\* 金光熙, 중국 延邊大學 人文社會科學學院 사학과 부교수

## 1. 들어가며

김재규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관심의 종속변수였다. 박근혜가 집권한 2013년에 출간된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가 한국정치사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2015년 2월 초 한국의 지인이 어떻게 하면 박정희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고 문의할 때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인데 가능하겠는가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다. 박근혜가 탄핵으로 파면되었으니 김재규의 재평가를 시도할 때도 된 것 같다. 그간 한국사회는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현대의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성향을 보여 왔다. 10·26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져 왔다. 국부를 죽인 패륜아라고 보거나, 장기독재를 무너뜨린 민주지사라고 평가하는 것 모두 김재규를 독립 변수로 놓고 파악한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박정희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 주장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재규를 있는 그대로, 제자리에 놓고 이해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 금단의 구역으로 여겨져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의 많은 학술지들에서도 김재규와 10·26사건을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 다루기를 꺼려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박정희를 옹호하기 위해 김재규를 폄하하는 것이나 박정희를 매도하기 위해 김재규를 높이 평가하는 것 모두 온당한 역사 평가 자세는 아니다. 이분법의 극단을 넘어서는 것이 김재규를 바로 평가하는 관건이다.

## 2. 호남비료사장으로부터 건설부장관에 이르기까지

1961년 6월 박정희 군사정부는 김재규를 호남비료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김재규는 호남비료 공장 완공에 공을 세우면서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공기를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군대식 돌진 방법을 강행하여

반발을 샀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회사를 내놓고 앙양불락하던 원 사장이 문환 씨와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남비료 사장을 마친 김재규는 1963년 9월 제6사단장으로 보임을 받았다. 서울 근교에 있던 6사단은 정치 군사상 대단히 중요한 부대이다. 박정희가 왜 김재규를 6사단장으로 임명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한쪽에서는 쿠데타 이후 동향이자 동기생인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군 내 여러 차례의 반혁명 사건으로 쿠데타 주도 세력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민정이양 후 민간세력의 비판으로 취약해진 정권을 보위해줄 인물은 결국 동향 동기생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며, 박정희의 ‘용인술’이 김재규를 불러냈다고 평가한다. 두 사람은 비록 육사 2기 동기생이지만 연령차이가 8살이나 되어 박정희에게 김재규는 동기생 중에서 상대하기가 비교적 만만했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데 모를 진압하기 위하여 1964년 6·4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당시 김재규의 6사단은 서울의 계엄을 책임졌다. 계엄령 다음날 김재규는 공화당 의원 이만섭에게 계엄군은 4대 의혹사건으로 군의 불신을 받고 있는 김종필 등 몇 사람을 체포해야겠다는 분위기라면서 김종필 제거에 앞장섰다.<sup>1)</sup> 그때 김종필은 정직한 군인들의 눈에 불의, 부패 권력의 상징으로 보인 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재규는 계엄령하의 통금위반자의 체포 등 경찰업무에 군을 동원하는 것을 거부했다. 김재규의 정의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1968년 1월 북한특공대 청와대 습격 사건 후 김재규는 방첩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재규는 방첩부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부대 명칭을 육군보안사령부로 개칭할 것을 건의, 허락을 얻어 1968년 10월 육군보안사령관에 취임했다. 그의 재직 당시 보안사령부는 간첩 검거에 큰 공을 세워 연 3회의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는데, 보안사령관 재직 중 그는 중장으로 진급했다. 공화당 원로 정구영의 회고록이나 철저하게 3선개헌을 반대했던 양순직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두 사람 모두 김재규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했다. 김재규

1) 이만섭, 『5·16과 10·26』, 나남출판, 2009, 88쪽.

는 개헌을 거부하면 박정희의 쿠데타 위험이 있다면서 설득작전을 폈으나 차지철은 정구영에게 순종하거나 탈당하라는 협박작전을 구사하였다. 민주당 이철 의원은 “김재규가 보안사령관 때 금릉중학교 동창회에서 ‘이 정부가 학생들을 다 죽이려 해 걱정이다’는 말을 몇 차례씩 해 동창생들이 의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sup>2)</sup> 김재규의 인간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장준하 및 그 가족과의 관련 일화이다. 장준하의 의문사 후 유족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김재규는 서울 변두리에 20평 정도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었다. 10·26후 박선호가 김재규의 지시로 자기가 신분을 감추고 해마다 쌀가마 등속을 전달했다고 증언하였다. 요컨대 김재규는 박정희의 후광으로 요직에 기용되었지만 박정희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려는 입장과 달리, 정권 내 중도 세력으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겠다.

1971년 4월 18일 김재규는 제일교포 대학생 서승 서준식 형제 등 간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박정희의 7대 대선을 크게 도왔다. 그러나 김재규는 동년 9월에 3군단장으로 좌천되었다. 김재규는 인재의 3군단에 부임할 때 정배 가는 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재규의 좌천은 두 가지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이다. 7대 대선 뒤 김재규는 모 야당의원과 박정희의 4선 불출마 공약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장담했고, 사석에서도 박정희의 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 정보기관장의 이런 태도가 장기집권 시도를 가진 박정희에게 좋게 보였을 리 만무하다.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는 가끔 영구집권의 힌트를 주었는데, 우직한 김재규는 그런 생각이 부당하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김재규와 수정사 사령관 윤필용의 알력이었다. 윤필용은 육군방첩부대장으로서 북한특공대의 청와대 습격을 예방하지 못해 밀려났다. 그 방첩부대장 후임이 바로 김재규였다. 김재규는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이 분명한 편이었다. 특히 월권하고 무례한 후배를 싫어했는데 윤필용에 대해 늘 불만이었다. 서종철 육군참모총장이 불화를 알고 김재규에게 화해를 권하자 그

2) 김성태, 『의사 김재규』, 매직하우스, 2012, 141쪽.

는 버럭 소리 지르면서 거절, 문을 박차고 나왔다고 한다.<sup>3)</sup> 그 후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각하! 자고로 국가원수 신변의 사고는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일어났습니다.”<sup>4)</sup> 어찌되었든 김재규의 말은 10·26사건으로 그대로 적중한 셈이 되었다. 윤 김 두 사람의 알력에서 박정희는 당연히 후배 윤필용을 나무랐어야 하는데 오히려 김재규를 좌천시켰다.

1972년 6월 공화당 원로 정구영 일행이 3군단 사령부 앞을 지나는데 김재규가 미리 알고 아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정구영은 자기와 만난 사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해지면 자네가 곤란해진다고 사양했지만 김재규는 끝내 대접을 했다.

박정희는 1973년 3월 김재규를 군에서 불러내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으로 임명했다. 이 역시 김재규로서는 불만이었다. 그는 군단장으로 있다가 군사령관을 하고, 가능하면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싶었다. 그는 과할 정도로 군복이나 장군 칭호에 애착이 있었다. 나중에 유언에서도 “사형당하면 장군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혀주고, 묘비에도 김재규 장군이라고 새겨 달라”는 요청을 남겼다. 이 정도로 장군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는데 중도에 그 꿈이 꺾였으니, 내심 쓰라린 좌절을 겪었을 것이다.

1973년 12월, 김재규는 갑자기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발령받았다. 그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더욱 자존심이 상한 것은 그가 5사단 대령 참모장일 때 사단 소령 법무참모에 불과했던 신직수의 수하로 가라니 그의 모멸감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육영수 여사가 김재규에게 경험 없는 신 부장을 보필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여, 중앙정보부 차장에 취임했다. 김재규의 차장 부임에 가족과 친지들의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역술인을 찾아갔다가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란 문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sup>5)</sup> 김재규는 정보부 차장으로 신직수 부장 밑에서도 잘 참고 일했다. 문제는 그가 의식적으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한 인내력을 발휘하나, 자신

3)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폴리티쿠스, 2012, 317~318쪽.

4) 김중신, 『박정희대통령과 주변 사람들』, 한국논단, 1997, 150쪽.

5) 김삼웅, 『김재규 장군 평전』 1, 두레, 2020, 95쪽. 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판단해서 부당하거나 참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급한 성격을 표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재규는 1974년 9월에 건설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건설부 장관 시절 박정희를 제거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음속으로 다소 불만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는 충실하게 유신정권에 참여해 중동 진출에 열을 올렸다. 1975년 교도소에서 장준하가 김재규의 장관임용 기사를 보고 “그 녀석, 장관 자리가 그렇게 좋아?”라며 개탄했다고 한다. 김재규는 건설부 장관으로 중동 건설 특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김정렴도 김재규가 중동 진출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회고했다. 당시 정무장관이던 신형식은 김재규가 경제 장관회의에서 다른 장관들이 반대론을 몇 시간이나 맞받으면서 해외 건설업체에 대한 국내은행의 지불보증 제도를 결연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sup>6)</sup> 결국 박정희가 김재규의 안을 지지하였고 이것이 중동 건설분의 촉진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재규는 2년 3개월 동안의 재임 중 중동 건설수출을 적극 추진, 상당한 실적을 올린다. 1974년 6900만 달러이던 중동건설 수주는 이듬해 8.5억 달러로 격증했다. 중동과 전혀 관계가 없던 그가 중동시장 개척의 선구자가 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어쨌든 당시의 경제난국은 중동건설 진출로 고비를 넘기면서 호황으로 돌아섰다.

### 3. 김재규의 명예욕과 자존심

김재규는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사 소식을 방송에서 듣고 그는 “이제 그곳 밥을 그만 먹을 때도 됐는데…”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김재규의 『수양록』에 근거하면 “1976년 12월 4일 돌연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부르셔서 갔더니 중정부장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순간 기분은

6) 조갑제, 『유고』 1, 한길사, 1987, 94쪽.

내키지 않았다.”<sup>7)</sup> 그가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마뜩찮게 생각했던 것은 국내 외적으로 시련의 시기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초대원장이었던 이종찬은 자신이 “직접 부장으로 모신 김재규는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으며 정의감도 있고 인정도 많았다.”고 회고하였다.<sup>8)</sup> 그러나 김재규에게는 남다른 자존심이 있었다. 그 자존심이 훼손되면 참지 못하고 욱하는 기질이 발동되곤 했다. 문제는 군을 포함해 그의 공직 경력에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는 점이다. 고건은 김재규가 복잡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고 회고하였다.<sup>9)</sup> 평상시 박정희에 대한 김재규의 태도를 본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그가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는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를 접촉했던 사람들 중 그의 우직하고 예절 바른 인간됨은 인정하면서도 능력면에선 혹평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박정희 정권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김종필이 김재규를 혹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종필은 김재규는 겉으론 온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욱하는 성질이 지나쳐 한번 흥분하면 얼굴이 빨개져 전후좌우 분간을 못하고 마구 욱을 해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sup>10)</sup>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일화를 소개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하자 김재규는 별떡 일어나 “에이나 이런 놈의 장관 안 한다”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비슷한 일은 1950년대 말에도 있었다.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이 브리핑을 잘못된 김재규를 심하게 야단치자 “에이 씨..., 그럼 옷 벗으면 될게 아냐.”고 문까지 발로 차며 나가버렸다.<sup>11)</sup> 김재규의 발작증은 8살이나 아래인 차지철과 경쟁하면서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 김계원은 군검찰 진술조서에서 “김재규는 소영옹주의에 사로잡혀 한번 화를 내면 뒷일을 생각함이 없이 이성을 잃는 사람이다”고 했다.<sup>12)</sup> 김재규의 심복으로서 정치문제를 맡았던 김정섭 중정 제2

7) 한국일보가 2004년 6월 26일 공개한 김재규의 욱증 수양록.

8)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1, 한울, 2015, 308쪽.

9) 고건, 『고건 회고록』 1, 와이즈베리, 2017, 261쪽.

10) 김종필, 『김종필 증언록』 1, 와이즈베리, 2016, 487쪽.

11)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1992, 334쪽.

차장보는 “김재규는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반사작용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소영웅주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sup>13)</sup> 아랫사람을 앞에 두고 좀처럼 하대하지 않던 박정희도 “재규” “재규”하며 그의 이름을 편하게 불렀다. 박정희는 김재규에 대해서는 편하게 대하다 보니 도가 지나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박정희가 비록 용인의 천재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김재규가 발작증이 있고 정보부장이 된 뒤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같다.

김재규는 스스로를 지위욕은 없지만 명예욕은 있는 사람이라고 평했고 역사에 깨끗한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김재규는 자신이 정의 감탄은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말했다.<sup>14)</sup> 정보부장이 된 이후 김재규의 행동에서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무능, 정책건의에 있어서 온건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의식하지 시작했다는 점이다.

명예욕과 역사의식은 김재규의 조상 숭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김재규의 18대조 김문기에 대한 숭배열은 대단했다. 김재규는 심지어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공인 받게 하려고 직권을 이용했다. 협조를 거부한 부하는 좌천 시켰다. 결국 김문기는 1977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해 사육신과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위패와 가묘를 사육신공원에 모시게 되었다. 당시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은 이선근, 이병도, 신석호, 백낙준, 유홍렬, 조기준, 한우근, 전해중 등이다.<sup>15)</sup> 국사학계의 이만한 인물들을 모아 만장일치로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인물을 잡자기 바꾸는 데는 중앙정보부 부장의 개입이 아니고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만장일치로 유응부를 빼고 김문기를 넣기로 하고, 노량진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까지 모셨다. 김재규가 처형된 후인 1982년 11월에 국사편찬위원회는 심의 끝에 “종래의 사육신 구성을 변경한 바 없다”라고 변명했다.

12) 조갑제, 『유고』 2, 한길사, 1987, 205쪽.

13) 위와 같음.

14) 안동일, 『10·26은 아직도 살아 있다』, 랜덤하우스코리아, 2005, 308쪽.

15) 이재호, 『조선사 3대 논쟁』, 역사의 아침, 2008, 16쪽.

김재규는 10·26 거사 하루 전인 10월 25일 김문기에 묘에 가서 손수 별초를 하고 오랫동안 묵묵히 참배를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sup>16)</sup> 이로 보아 김재규는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26 거사 후 김재규는 부인 김영희에게 유언할 때 자신과 부하들의 묘를 사육신묘처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김재규의 안동농림학교 시절 별명은 노기 대장이었다.<sup>17)</sup> 노기 대장은 러일전쟁 때 여순을 함락시킨 명장으로 메이지 천황이 죽자 부인과 함께 따라서 자결한 일본 무사정신의 화신이다. 일본 무사들을 의식하며 살아온 김재규는 선후배 관계나 의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동원은 회고록에서 1971년 가을 김재규의 숙소 책꽂이에 일본 무사정신이 스민 책이 가득한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sup>18)</sup>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김재규는 한 번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고 그들이 곤경에 처하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또 김재규 같은 사람은 자신의 성의가 무시되면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면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형욱 사건이다. 김재규는 친서를 쓰는 등 백방으로 김형욱을 회유하기에 애썼다. 그런데 김형욱을 회유하는 중앙정보부 현지 책임자인 손호영이 미국에 망명하는 사건으로 김재규의 온건한 입장은 권력층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돼버렸다. 이것은 사나이의 위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김재규로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코리아 게이트에서도 김재규의 발작증은 재현되었다. 1977년 1월 9일 김재규는 로비스트 김한조가 40만 달러의 사용내역 설명을 거부하자 정보부장을 우습게 아나면서 권총을 뽑아 김한조를 겨누었다.<sup>19)</sup> 이에 윤일균 차장이 들어가 김의 손목을 붙잡아 권총을 제압했다. 윤일균에 의하면 방에 들어가 보니 “김 부장은 권총을 빼들고 있었다. 눈빛은 제정신이 아닌 듯했다. 그 일로 김재규가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sup>20)</sup>고 한다. 김재

16) 이정식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 인간 김재규』, 1980, 58쪽.

17) 조갑제, 『유고』 1, 88쪽.

18) 이동원, 앞의 책, 345쪽.

19) 김한조, 『코리아 게이트』 1, 열림원, 1995, 278쪽.

20) 김충식, 앞의 책, 683쪽.

규 주변인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김재규의 분노조절장애는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 4. 김재규의 살해 동기

10·26 당시 박정희의 한 측근은 김형욱의 회고록 문제로 김재규는 “김대중 때문에 이후락 부장이 받았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보다도 더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정치적인 면에서 박정희를 비난했지만 김형욱은 박정희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사상문제와 갖가지 돈, 섹스, 스캔들까지 출판이 예정된 회고록에서 언급했음이 밝혀져 박정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전 해군제독 이용운의 주선으로 김형욱과 김재규는 전화통화로 150만 달러를 주고 회고록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권문제로 일이 틀려지자 김재규가 화를 내며 ‘지금까지 약속한 것, 다 취소하겠다. 김형욱 그자는 혼 좀 나아겠다’고 얘기하는 걸 주변에서 들었다.<sup>21)</sup> 김재규는 10·26 직전에 김형욱이 박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가를 망신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제거하라는 지시를 은밀히 내린 적이 있었다.<sup>22)</sup> 김재규의 살해지시는 정보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한다.<sup>23)</sup> 그러나 김재규는 자신이 살해를 지시하고도 순위 동서인 최세현에게 박 대통령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김형욱을 그렇게 잔인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고 격분했다고 한다.<sup>24)</sup> 김재규는 국선변호사 안동일에게도 김형욱 실종에 그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뿐더러 김형욱 실종사실에 관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탄식했다. 김재규는 강신욱 변호사 등에게도 자신은 김형욱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두 얼굴의 김재규를 보게 된다. 김형욱 살해지시가 자신을 민주의사로 부각시키는데 불리하기에 극구 부인한 것으

21) 조갑제 외, 『과거사의 진상을 말한다』 상, 월간조선사, 2005, 302쪽.

22) 이종찬, 앞의 책, 326쪽.

23) 한홍구, 『유신』, 한겨레출판, 2014, 377~378쪽.

24) 오성현, 『비운의 장군 김재규』, 낙원사, 1995, 173쪽.

로 보인다. 김재규로서는 자신을 여러 차례 망신시킨 김형욱을 동정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하에서 김형욱, 이후락 등 전임들의 해임 후의 비참함을 목격한 김재규로서는 자신의 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김형욱 제거는 그의 경질설과 연관되어 살해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을 보면 보안사령부는 10·26사건을 김재규가 박정희의 신임을 잃어가는 데서 비롯된 불만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부각된 것이 정보부장의 경질설이었다. 중앙정보부 여러 국장이 김재규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정보부장 해임설을 들었다. 당시 요직 개편설이 나돌았고 김재규는 직위에 대한 미련은 없어도 교체되는 데 대한 궁금증은 많아 김계원에게 박정희의 의중을 살펴 자신이 그만둘 때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명예를 생명처럼 존중했던 김재규였다. 본인은 재판정에서 시종 몰랐다고 했으나 부마사태 이후 청와대 주변에선 개각설과 정보부장 교체설이 파다했었다. 박정희의 경제특보였던 남덕우에 따르면 김재규는 자신의 후임으로 서종철이 내정되었다는 첩보를 듣고 있었다.<sup>25)</sup> 역대 정보부장들의 위력과 권위에 비추어볼 때 김재규는 최약체로 전락하고 있었다. 청와대 권력주변은 ‘눈 밝고 귀 밝은 여우들의 소굴 같다’고 김재규는 불평하곤 했다.<sup>26)</sup> 정보부장 경질설은 1979년 여름부터 수없이 나돌았다. 후임에는 법무장관 김치열, 내무장관 구자춘, 경호실장 차지철, 서종철 등이 거론되었다. 김재규의 신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청와대 주변의 공지사실이었다. 김재규는 박정희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당시 술과 여자를 너무 탐했다. 궁정동에 비밀요정식 연회장을 두고 외부에서 술시중을 드는 여자들을 조달해서 벌이는 술판이 사흘에 한번 꼴로 열리고 있었다.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를 거처 간 여성이 200명쯤 되는데 웬만한 일류 연예인은 다 불러갔었다.<sup>27)</sup> 궁정동 안가와 같은 대통령

25) 손광식, 『한국의 이너서클』, 중심, 2002. 38쪽.

26) 김충식, 앞의 책, 737쪽.

27) 안동일, 앞의 책, 359쪽.

전용 “요정”은 모두 5곳이나 있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여자 관계가 지나칠 정도로 난잡하다고 여러 차례 불평했다고 한다.<sup>28)</sup> 주색으로 박정희는 심신이 쇠약해져가고 있었다. 가중되기만 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박정희의 강경일 변도는 김재규가 보기에 사생활문란으로 인한 판단력 마비 때문이었다. 황음에 빠진 통치자를 존경할 수 있는 부하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김재규의 동기는 여기에도 큰 비중이 있었다.

대통령 식구들, ‘로열패밀리’ 때문에 생긴 김재규의 스트레스도 10·26의 한 원인이었다고 당시 중정 국장들은 증언하고 있다. 박정희가 박근혜와 박지만 등 자식들의 문제가 나오면 아예 처음부터 말도 못 붙이게 감싸는 바람에 사태가 계속 악화되게 만들었다. 김재규는 박근혜가 관련된 구국여성봉사단의 부정과 행패에 관하여 매우 분개하였다. 김재규는 취임한지 얼마 안 되어 대통령을 위해 직언을 하겠다고 작심, 박정희에게 최태민의 비리를 보고했으나 박근혜가 최태민을 비호해 대통령 앞에서 대질 친국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sup>29)</sup> 정계의 제2인자인 정보부장이 ‘사이비’목사와 나란히 앉아 우김질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굴욕이었다. 김정렴 김계원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수석비서관들 특보들이 고민했으나 박근혜와 관련된 일이라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sup>30)</sup> 박정희도 사정을 꿰뚫고 있었으나 자녀들에게 약점을 잡혔기에 결국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한 기자는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자식들에게 약점을 잡혔는데 “큰 행사, 작은 행사 등의 얘기가 근혜 씨의 귀에도 흘러들어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sup>31)</sup> 1979년 5월에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계속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김재규는 “그자는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 없어져야 할 놈이다”고 화를 냈다.

그러나 김재규의 살해 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차지철과의 충돌이다. 박정희의 차지철 편에는 자존심 강한 김재규를 자극했다. ‘버리지 같은 자식’이라면서 충을 쓰기까지 김재규로서는 차지철에 관해

28)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3, 인물과사상사, 2002, 273쪽에서 재인용.

29) 김충식, 앞의 책, 736쪽.

30) 김진, 『청와대 비서실』 1, 중앙일보사, 1992, 443쪽.

31) 김성태, 앞의 책, 38쪽.

한 많은 사연을 쌓아갔다. 김재규와 차지철 두 사람의 대립은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본격화되었다. 김재규와 차지철의 다툼에 전두환은 “우군 싸움이 김일성과의 싸움보다 더 심하다”고 느꼈다.<sup>32)</sup> 10·26 직전에도 김재규는 공화당 의원 이만섭에게 “차지철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푸념하였다.<sup>33)</sup> 흥미로운 점은 김재규가 법정에서와 변호인에게는 두 사람의 충돌을 극구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김계원도 두 사람의 관계가 극히 나빴던 것으로 증언하였다. 김재규의 총격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박정희란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차지철에 대한 증오심이 뇌관을 터트리는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월 28일 그가 자필로 쓴 1차 진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1차 진술조서는 그가 대통령을 살해한 이틀 뒤 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전의 비교적 순수한 상태의 고백이란 장점이 있는 반면, 가혹한 고문으로 수사관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단점이 있다. 김재규는 진술서에서 살해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국이 시끄러워지고 본인의 수습방안이 실패를 반복함에 따라서 사실상 무능력한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실장 차지철은 사사건건 업무에 관하여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었으며, 군 후배이고 年下者인 그로부터 오만불손, 개인적인 수모를 수차에 걸쳐 당하였습니다. 또한 각하가 차실장을 편애하는 데 대하여도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중요 보직자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는데 거기에 본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진술서로 보면 살의를 격발시킨 것은 그날 밤 차지철의 오만방자한 행동이었다. 10·26이 터졌을 때 진상이 밝혀지기 전 청와대 보좌진이 ‘차지철이 사달을 냈다’고 집단 착각에 빠질 정도로<sup>34)</sup> 차의 월권은 심각했다. 대통령과 저녁을 같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정승화 총장을 초대할 때부터 김재규의 살의는 시작되었으나 확정된 의지는 아니었다. 그날 밤 박정희와 차지철이 다른 모습을 보였더라면 김재규의 생각도

32) 김성익, 『전두환 육성증언』, 조선일보사, 1992, 348쪽.

33) 이만섭, 『정치는 가슴으로』, 나남출판, 2014, 194쪽.

34) 고건, 앞의 책, 257쪽.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김재규의 진술과 증언에서 제1의 동기인 ‘차지철에 의한 수모’가 빠지고 여기에는 없던 민주회복이 제1의 동기로 등장한다. 차지철과의 갈등을 김재규가 극력 부정하는 것은 갈등이 자신을 민주회복사로 부각시키는데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의 살해동기에서 홀시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대의(大義)이다. 비록 김재규의 민주주의혁명론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에게 정의감이 있었던 것은 주변사람들이나 접촉이 있었던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 바이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김재규가 유신체제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고 표시하였다. 김재규는 부마항쟁 현장에서 시민들이 정권에 등을 돌렸다고 판단하고 유신체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26 사건 전후 며칠간의 김재규의 표현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 신민당 공작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가 하면 18대조 김문기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하였다. 10·26 사건 당일 아침까지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애쓰는가 하면 저녁에는 발포명령 운운하는 박정희에게 직접 충격을 가했다. 따라서 필자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만약 신민당 공작이 성공하였거나 김재규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더라도 충격을 가할지 여부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김재규의 정의감이나 역사를 의식한 점 등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민주회복혁명론은 신빙성이 분명히 떨어진다.

## 5. 충성과 배신 사이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충직하긴 했지만 무조건 충성만 한 건 아니었다.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면이 있었다. 김영삼 제명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인데, 김재규의 그런 자세를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신봉한 점도 보인다. 김수환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김재규를 만났을 때, 김재규가 유신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

로 보였다고 말했다. 1978년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건강이 몹시 나빴던 김대중을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감 조치하도록 노력한 것도 김재규였다. 최태민과 박근혜를 어떻게 해서라도 떼어놓으려 한 것도 김재규다운 모습이었다. 김재규는 당시 여권에 있던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달랐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김재규가 충성과 배신 사이에서 방황 같듯한 흔적이 역력하다. 따라서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충성했다는 증언은 수두룩하다. 김재규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중정 감찰실장 김학호와 사무관 유석문의 증언대로 “박정희에게 충성하겠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고, 청와대를 들어갈 때마다 머리와 옷매무시를 다시 했다”고 할 정도로 박정희를 각별하게 대했다. 건설부장관 시절이나 중앙정보부장 재직 시에도 박정희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을 때는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로 전화를 받았다고 널리 알려졌다.<sup>35)</sup>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중정을 맡길 정도로 신임했다는 것은 그가 보인 충성 정도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는 과묵하기는 했지만, 면중복배할 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김재규의 ‘거사’ 후 주변사람들에게조차 “설마 그가…”하는 놀라움을 안겨주었던 것은 평소에 그가 박정희를 대하던 태도를 짐작하게 해준다.<sup>36)</sup> 김계원은 법정에서 김재규의 진술뿐 아니라 보안사측의 수사내용과도 상반되는 진술을 많이 했다. “김재규 피고인은 중정부장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누구보다도 성의껏 충성스레 이 정권을 위해서 일해 왔던 중정부장입니다. 그런 생각(모반)을 그 때부터 했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sup>37)</sup>

박정희는 1978년 유신헌법2기 대선을 앞두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다. 김종필에 따르면 김재규와 차지철은 박정희의 심기를 미리 읽어 서로 더 큰 공을 세우려 했다. 1978년 2월 김재규는 김종필에게 중앙정보부는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으로 모시는 업무에 모든 기능과 자원을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차

35) 이만섭, 『5·16과 10·26』, 80쪽.

36) 김대근, 『김재규 X-파일』, 산하, 2005, 61쪽.

37) 김재홍,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진술 전 녹음』 하, 동아일보사, 1994, 212쪽.

기를 넘보지 말라고 김종필을 직접 협박했다.<sup>38)</sup>

김재규는 10·26 직전 스위스 파견관에게 명품 시계 구입을 지시한 일이 있었다.<sup>39)</sup> 그 명품시계에는 박정희의 이름이 새겨졌다. 박정희는 시계를 전달받기도 전에 구입을 지시한 김재규의 손에 살해되었다. 시계는 장례식이 끝난 뒤 유가족에게 전달되었다. 김재규가 오래전에 모반을 계획했다면 시계 구입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10·26의 열흘 전쯤에도 “대통령께서 일본 비디오를 좋아하시니 일본에 가서 구해오라”는 부탁을 동생에게 하였다.

김재규의 배신 관련 증언도 비록 충성 증언에 비길 바는 아니지만 역시 적지 않다. 김재규는 1979년 4월에 거사를 하려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궁정동으로 불렀다고 말했는데, 1979년 공화당 사무총장 신형식은 박정희에 대한 김재규의 태도가 섬뜩한 기분이 들 정도로 불측하고 불손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sup>40)</sup> 그는 10·26사건을 접했을 때 김재규의 불손했던 태도가 퍼뜩 떠올랐다고 한다. 육사 동기생인 손모 장군도 같은 시기에 김재규를 만났을 때 김재규가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김재규가 분명히 1979년에는 박정희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는 강한 비판 의식 또는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 전당 대회 전야 김재규는 김영삼에게서 합의 언약을 받고, 박정희에게 보고했으나 박정희는 “총재되지도 않을 자를 왜 영웅 만들어 주느냐”고 역정을 냈다. 심사가 뒤틀린 김재규는 김대중이 김영삼을 지원하여, 김영삼이 총재에 당선되도록 방관하였다. 10·26 수일 전 김재규는 같은 종씨에게 김영삼을 밀어주기 위해 김대중의 연금을 하루 풀어주었다면서 “누군가가 후세에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말해두는 거야”고 했다.<sup>41)</sup>

YH무역 여공들의 농성에 대해 책임자인 부총리 신현확과 내무장관 구자춘의 대처 방안은 대화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sup>42)</sup> 그런데도 김재규는

38) 김종필, 앞의 책, 495쪽.

39) 이종찬, 앞의 책, 326쪽.

40) 서중석·김덕린,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5, 오월의봄, 2018, 201쪽.

41) 조갑제, 『박정희』 12, 조갑제닷컴, 2007, 211쪽.

42) 신철식, 『신현확의 증언』, 메디치미디어, 2017, 291쪽.

그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경찰을 투입해서 한 여공이 사망하는 참극을 빚었다. YH사건은 결국 유신붕괴의 서곡으로 되었다.

1979년 9월부터 10월 사이 김재규는 굉장한 강박심리 상황이었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김재규는 ‘한국이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유신 체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거사할 무렵에는 했던 것 같다. 직접적인 계기는 부마항쟁을 자기 눈으로 보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점을 계속해 온 김재규는 부산사태를 사전에 탐지, 예방 못 한 책임으로 거의 결정타를 맞았다. 10월 22일과 25일 김재규는 “각하로부터 부마사태와 관련하여 꾸중과 기합을 단단히 받았다.” 김재규는 부마 시위현장의 체험을 통해서 ‘이 정권의 운명이 다했구나’ ‘제2의 4·19가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재규는 부마사태를 지켜보고 유신철폐야말로 3·1 운동이나 4·19혁명처럼 모든 국민이 환호하는 절대 절명의 구국적 과제로 생각했다. 그러나 내심은 어떠했는지 표면적으로 김재규는 시위 진압을 독려 하였다. “4·19는 우리 군의 수치다. 계엄군이 본분을 이탈, 시민과 합세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번에는 군의 본분에 충실하라.”<sup>43)</sup> 이로 미루어보아 박정희 제거 결심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날 손아래 동서인 김봉태에게 부산사태를 민중봉기라고 표현하는 등 김재규의 분위기는 싹 달라졌다.<sup>44)</sup> 10월 23일 김재규는 친척 두 분을 공관으로 불러서 평소에 그가 써놓았던 붓글씨들 ‘爲민주주의’ ‘민주’ ‘자유’ ‘자유민주주의’ ‘비리법권 천(非理法權天)’ ‘爲대의’ 등을 가리키며 이 말들을 잘 새겨들고 후손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sup>45)</sup> 24일에는 부인과 딸에게 밀도 끌도 없이 대의를 따를 것이냐, 소의를 따를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sup>46)</sup> 그날 김재규는 신민당 총무 황낙주에게 “난국을 수습하지 못하면 광화문 네거리가 피바다가 되니” 난국 수습을 위해 김영삼과 황낙주가 사퇴하라고 협박 회유했지만 실패했다. 마지막까지도 중정 부장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역시 그날 김재규는 이후락

43) 박종민, 『김재규 대 차지철』, 청목서적, 1988, 137쪽.

44) 조갑제, 『박정희』 12, 340쪽.

45) 오성현, 앞의 책, 166쪽.

46)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2005, 316쪽.

을 만났을 때 “제가 딱 해치우겠습니다.”고 말했다.<sup>47)</sup> 이후락은 신민당을 해치우겠다는 말로 들었다가 10·26 후에야 다른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재규가 충성과 배신사이에서 집중적으로 갈등한 것은 1979년이였다. 따라서 ‘민주주의 회복’은 오래 동안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 6. 원흉과 의사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26일까지 마무리를 약속 했던 신민당 공작은 실패로 끝났다. 어쨌든 김재규는 박정희를 볼 면목이 없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김재규는 26일 아침까지도 분위기를 바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김재규는 삼교천 근방에 신설된 정보부 부속 시설을 박정희에게 자랑하려고 청와대에 요청해 박정희가 삼교천 방조제 행사 뒤 이 시설을 잠시 방문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sup>48)</sup> 박정희에게 브리핑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까지 했다. 26일 아침, 김재규는 박정희와 함께 1번 헬기에 탑승하여 삼교천에 가기로 계획을 잡았다. 그런데 차지철은 김재규가 1번 헬기에 탑승하는 것을 저지하고 2번 헬기에 따로 타고 오게 했다. 격분한 김재규는 청와대 헬기장에 그대로 남았고, 궁정동 안가로 돌아와 흥분을 삭였다. 그런데 오후에 차지철로부터 ‘대행사’ 전갈이 왔다. 이때 김재규는 분노를 삭이려 고심하던 것을 ‘오늘 끝장내자’는 각오로 바꾼 것으로 추측된다. 부마사태로 혁명 분위기가 완전히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데다 정보부장 경질설로 언제 박정희를 제거할 수 있는 실행력을 잃을 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박정희 최후의 날은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암살이라고 하기에는 현장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다. 김재규

47) 서중석·김덕련, 앞의 책, 97쪽.

48) 이종찬, 앞의 책, 324쪽.

의 살의는 차지철의 연락을 받고 정승화를 초대했을 때부터 비롯되지만 만찬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포기할 수도 있는, 굳어지지 않은 살의였다. 더구나 24일까지도 김재규는 야당 공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고 그날 아침까지도 분위기를 돌려세우려 애쓰지 않았던가. 살의는 순간적이었고 사그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날따라 김재규를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재규, 넌 시간이 지날수록 참 실망스런 인물이야. ……다 할 수 있다더니 제대로 한 게 뭐야.”<sup>49)</sup> 저녁 7시 10분 경 바깥으로 나왔을 때, 김재규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돼 있었다. 정승화와 김정섭의 도착을 확인하고 박선호에게 결행준비를 지시했을 때가 살의가 결정적으로 굳어진 시점으로 보인다. 더구나 박정희의 ‘발포명령’ 차지철의 ‘탱크’발언 등은 김재규의 정의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김재규가 차지철과 박정희에게 발포한 것은 저녁 7시 45분경이었다.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에 대해 ‘원흉’론과 민주‘의사’론이 있다. ‘원흉’론은 ‘우발적 살인’과 ‘내란 목적 살인’으로 나뉜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것은 합동수사본부의 ‘내란 목적 살인’설이다. 합동수사본부는 10·26을 ‘대통령이 되려는 과대망상증 환자에 의한 내란 목적 사건’으로 기소했다. 김재규가 대통령의 될 야심을 품고 10·26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분명히 계획적인 거사였다. 그러나 합동수사본부는 또 10·26이 차지철과의 불화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건이라 함으로써 모순에 빠졌다.

김재규의 거사는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영성하고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재규 자신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결심하고 기회를 보다가 거사한 계획적인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후사정을 고려해보면 설득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적극적인 찬성은 하지 않아도 방해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김계원을 살려두고, 보안 유지를 당부한 채 궁정동을 떠난 것만 보아도 김재규의 ‘혁명’은 영성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전 중앙정보부 감찰실장 김학호도 살해

49) 김종필, 『김종필 증언록』 2, 와이즈베리, 2016, 30쪽. 김종필의 증언은 그 동안 많이 알려진 것과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인용했다.

후 당황해 우왕좌왕한 사실을 치밀한 계획에 의한 내란목적 의사가 없었다는 단적인 증거로 보았다.<sup>50)</sup> 합수부 수사국장 백동립도 김재규가 처음에 만찬장에 들어갈 때 평소와 달리 권총을 가지지 않은 점을 들어 단순 살인으로 보았다.<sup>51)</sup>

계획적인 거사나 우발 살해 주장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계획적인 거사라는 주장은 김재규가 오전까지도 분위기 반전에 노력했던 점, 신민당 공작에 애쓴 점, 명품시계 주문, 동생에게 일본 비디오를 부탁한 점 등 많은 의혹을 해석하지 못한다. 우발 살해 주장은 살해 장소 2층에도 있는 권총을 내버려 두고 50미터쯤 떨어져 있는 본관에 권총을 가지러 간 것, 사전에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제2차장보 김정섭을 본관에 대기시킨 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sup>52)</sup>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 있을 수 있다. 첫째 주장의 단점에 대해서는 김재규의 그날 오전까지의 행적에 대해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잘못가다가도 마지막에 깨달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을 자리를 찾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sup>53)</sup>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둘째 주장의 단점에 대해서도, 김재규가 본관에는 정승화의 만찬장소 도착여부를 확인하고<sup>54)</sup> 권총을 가지러 가기 겸 부하들에게 지원을 지시하기 위하여 만찬장소를 떠나 본관에 반드시 가야만 했다는 반론과 과거에도 본인조차 박정희를 직접 대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여러 차례 살해를 포기했다 했으니 그날의 살의도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반론 역시 완전히 가능하다. 인물 평가에서는 입증이 곤란한 심리보다는 행적에 근거하는 것이 훨씬 합리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 교수도 우발과 계획의 중간쯤에서 우발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sup>55)</sup> 요약하면 김재규의 거사는 우발적인 살해나 계획적인 의거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특점이 있다. 김재규

50) 김성태, 앞의 책, 143쪽.

51) 이동현, 『이슈로 본 한국현대사』, 민연, 2002, 136~137쪽.

52) 정길화·김환균 외,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해냄, 2006, 123쪽.

53) 김삼웅, 앞의 책, 286쪽에는 김재규가 상술한 요지로 강신욱 변호사에게 말한 것으로 나온다.

54) 1979년 12월 6일의 제2차공관에서 김재규가 한 말이다. 김재홍,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진술 전 녹음』 상, 동아일보사, 1994, 73쪽.

55) 이완범·정용욱 외, 『1980년대 한국사회 연구』, 백산서당, 2005, 49쪽.

의 성격이 대단히 복합적이기에 그의 행적에도 복합적인 면이 많다. 때문에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도 우발과 계획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10·26 당일 밤 전두환 측은 김계원을 통하여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아냈다. 여기에서 김재규는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박정희의 시신을 궁정동에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둔 점이였다. 김재규는 한 번도 박선호에게 현장 봉쇄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신 처리에 대해서도 아무 지침을 주지 않았다. 박선호가 살해 목격자인 두 여인을 차에 태워 집에 보낸 것을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사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sup>56)</sup> 김재규가 아무리 경황이 없었더라도 대사를 그렇게 어설피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분석가들은 의아해 한다. 김재규는 거사 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을 펴고 정승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태를 장악한다는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재규가 육본으로 간 것과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단단히 단속토록 궁정동의 부하들에게 지시하지 못한 것 등의 두 가지 실수는 거사를 결정적으로 실패케 한 요인들로 작용했다.

김재규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박정희와의 개인적인 의리라는 소의를 끊고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평가는<sup>57)</sup>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김재규가 차지철을 편애하는 데 대한 사적 원한과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박정희 정권을 붕괴시켜야 하겠다는 공적 대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박정희를 사살했다는 평가가 더 타당하다.<sup>58)</sup> 그를 지켜봤던 한 군 관계자는 김재규의 태도가 첫 면회 때부터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 전에는 자성하는 빛이었는데 가족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준 뒤로 ‘혁명’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59)</sup> 심지어 김재규의 장인이 사위를 보는 눈도 달라졌다. “자네가 큰일을 해내서

56) 이완범·정용욱 외, 위의 책, 47쪽.

57) 한홍구, 앞의 책, 401쪽.

58) 정영국·양동안 외, 『과도정부 비교연구』, 백산서당, 2003, 96쪽.

59) 김대곤, 앞의 책, 59쪽.

자랑스럽네. 이제야 정말 나의 사위답구먼.”<sup>60)</sup>

김재규는 재판정이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결산할 마지막 무대임을 잘 알고 있었다. 체포된 후 약 40일 동안 이론 무장에 주력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일관하여 민주혁명론을 설파, 민주 회복을 위해 거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재규의 진술상의 특징은 횡수가 거듭될수록 동기나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논리적으로 발전 되어갔다는 점이다. 군 검찰관들은 이점을 들어 김재규의 진술을 자신의 행동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기’로 미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국선변호사 신호양도 “그를 면회하는 횡수가 잦아질수록 그의 동기론이 점차 체계를 잡아가는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sup>61)</sup>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군 검찰관들이 김재규의 주장을 거짓말로 생각한 반면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수긍했다는 점이다. 11월 29일 김재규는 변호인단을 면회한 자리에서 자신의 거사 동기와 거사 뒤의 구상을 도도하게 털어놓았다. 변호인들은 크게 감동했는데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sup>62)</sup> 종교계와 재야 일각에서는 김재규를 의사로 규정하고 구명운동을 벌였다. 김재규 거사와 관련해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천주교와 변호사들이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위해 거사했다고 강조하면서 기념사업을 오래 동안 해온 점이다.

김재규가 거사 직전에 부하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말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의 뇌리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씨앗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63)</sup> 김재규가 투철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었고 10·26 월권 전부터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의사였다는 주장도 있다. 김재규를 단순한 배신자 또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인데, 생각해볼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김재규의 행적에 비취볼 때 과한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김진홍 군법무관은 김재규가 권력욕으로 일을 저질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민주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표시하였다.<sup>64)</sup> 때문에 ‘의사 김재규’라는 평가에 대해 아직도

60) 문영실,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시사IN북, 2013, 344쪽.

61) 조갑제, 『유고』 2, 211쪽.

62) 김대곤, 앞의 책, 89쪽.

63) 조갑제, 『박정희』 13, 조갑제닷컴, 2007, 109쪽.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7. 맺음말

박정희 정권에게 모진 압제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재규와 10·26 사건에 대한 평가는 의외로 부정적이다. 김대중은 유신 체제의 붕괴가 민주 세력의 힘을 통해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당시 상황은 부마항쟁을 필두로 해서 전국적인 항쟁의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김재규의 암살이 결과적으로 이를 막은 것으로 평가하였다.<sup>65)</sup> 그러나 유혈사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 유신체제를 수호하려 한 박정희의 성격을 고려할 때 10·26이 없었더라면 심각한 유혈 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 김재규의 말처럼 광화문이 피바다가 되는 유혈사태가 났을지는 의문이지만 자신이 직접 “발포명령”을 운운한 박정희의 정신 상태나 탱크로 싹 쓸어버리겠다는 차지철의 언행으로 보아 광주학살에 준하는 대규모 유혈사태의 발생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80년 5월의 학생시위에 대하여 시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구경만 하면서, 학생들이 동참을 권유하면 시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기도 하는 등 1987년 6월 항쟁에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요약적으로 말하면 ‘서울의 봄’이 좌절되는 것을 일반대중이 방관한 것이나 양김이 합심했어도 전두환의 5·17쿠데타를 막지 못한 것, 광주의 외로운 항쟁과 피비린 살육 사실 등은 전국적인 항쟁으로 민주사회를 건설할 정도의 역량이 형성되었다는 김대중의 주장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다. 10·26 자체는 민주화를 요구한 부마항쟁으로 촉발됐고, 심각한 유혈사태를 막았다는 데 10·26사건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

김재규의 총격으로 박정희가 사망하고 유신시대가 끝났다 하여 김재규가 민주주의를 위해 신성인한 것처럼 평가하는 것도 무리지만 김재규의 암살이

64) 김성태, 앞의 책, 140쪽.

65) 장산기,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시대의창, 2021, 71쪽.

전국적인 항쟁을 막았다는 주장도 다른 극단이다. 이분법은 인물이나 사건의 평가에서 쉽게 극단으로 치닫는다. 김재규를 민주의사로 찬양하거나 국가원수를 시해한 원흉이라고 매도하는 이분법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본다.

## ■ 참고문헌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3, 인물과사상사, 2002.
- 고 건, 『고건 회고록』, 나남, 2017.
- 김 진, 『청와대 비서실』 1, 중앙일보사, 1992.
- 김대곤, 『김재규 X-파일』, 산하, 2005.
- 김삼웅, 『김재규 장군 평전』, 두레, 2020.
- 김성익, 『전두환 육성증언』, 조선일보사, 1992.
- 김성태, 『의사 김재규』, 매직하우스, 2012.
- 김재홍,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진술 전 녹음』 상 하, 동아일보사, 1994.
-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2005.
- 김정렴, 『아, 박정희』, 랜덤하우스코리아, 1997.
- 김종신, 『박정희 대통령과 주변사람들』, 한국논단, 1997.
- 김종필, 『김종필 증언록』 1-2, 와이즈베리, 2016.
-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폴리타쿠스, 2012.
- 김한조, 『코리아 게이트』 1-2, 열림원, 1995.
- 문영심,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시사IN북, 2013.
- 박종민, 『김재규 대 차지철』, 청목서적, 1988.
- 서중석·김덕련,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4-15, 오월의봄, 2018.
- 손광식, 『한국의 이너서클』, 중심, 2002.
- 신철식, 『신현확의 증언』, 메디치, 2017.
- 안동일, 『10·26은 아직도 살아 있다』, 랜덤하우스중앙, 2005.
- 오성현, 『비운의 장군 김재규』, 낙원사, 1995.
- 이동원, 『대통령을 그리며』, 고려원, 1992.
- 이동현, 『이슈로 본 한국현대사』, 민연, 2002.
- 이만섭, 『5·16과 10·26』, 나남, 2009.
- \_\_\_\_\_, 『정치는 가슴으로』, 나남, 2014.
- 이완범·정용욱 외, 『1980년대 한국사회 연구』, 백산서당, 2005.
- 이정식,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 인간 김재규』, 1980.
- 이종찬, 『숲은 고요하지 않다』 1, 한울, 2015.
- 장신기, 『성공한 대통령 김대중과 현대사』, 시대의창, 2021.
- 정영국·양동안 외, 『과도정부 비교연구』, 백산서당, 2003.
- 조갑제, 『유고』 1-2, 한길사, 1987.
- \_\_\_\_\_, 『과거사의 진상을 말한다』 상, 월간조선사, 2005.
- \_\_\_\_\_, 『박정희』 12-13, 조갑제닷컴, 2006.
- 한국정치연구회,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 1993.
- 한홍구, 『유신』, 한겨레출판, 2014.

## 对金载圭和10·26枪杀案的再认识

金光熙\*

目前为止,学界对金载圭的关注和研究不过是对朴正熙和朴槿惠的关注度的跟变量而已。由此,对金载圭和10·26枪杀案的评价极端分裂为弑君逆贼和民主烈士。其实,仔细考察金载圭其人其事不难发现他并没有盲目忠于朴正熙,而作为中间派做出了一些努力。不仅如此,金载圭特别看重名誉,自尊心受到损伤就极为愤怒。与车智澈的冲突、朴正熙沉迷于酒色、对维新独裁的不满等构成了刺杀动机。金载圭明显带有多重性格,其行迹也显示出了相互矛盾的多重性,经常徘徊、纠结于忠诚与反叛之间。10·26枪杀案也是愤怒与大义交互作用的结果。因此,把金载圭贬斥为逆贼或者褒扬为民主烈士都不尽合理。要正确评价金载圭就得跨越逆贼对烈士的黑白逻辑的误区,需要把金载圭放回原处客观冷静地分析。

**關鍵字** : 金载圭, 10·26枪杀案, 朴正熙, 黑白逻辑, 民主烈士, 弑君逆贼

논문투고일 : 2021년 10월 8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1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2일

---

\* Department of history, School of humanities, Yanbian Univ.